오청원 씨는 " 전국연극제가 지역연극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을 가진 지역 작가의 신작 희곡 선정과 선정된 대표팀에 예산 지원 등 전국연극제 운영 개선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문예회관 2층 이동전시실에서는 15개 시 · 도 대표 미술인과 사진가가 참가하는 사진전과 미술전이, 연극제가 열리는 대극장 로비에선 <제주연극사 자료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편 제20회 전국연극제는 2002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년 전주 연극제는 이번 연극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해 전국 각 처의 지역문화를 담보할 수 있는 ' 좋은 작품 ' 이 많이 출품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제19회 전국연극제』 심사평

이 글은 6월 9일 『제19회 전국연극제 』시상식에서 발표한 차범석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을 전재한 것입니다.

" 연극은 관객을 위한 예술입니다 "

차범석 | 『제19회 전국연극제』 심사위원장 / 극작가 · 예술원회장

안녕하십니까. 차범석입니다.

전국연극제가 시작된지 19년! 1년이 모자랍니다만 성년이 된 셈입니다. 저는 19년 전에 했던 첫번째 연극제를 회상하며 여러분들이 하신 연극을 보고 있노라니까, 이제 성년이 되었구나…, 동시에 연극제가 하나의 경영혁신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만큼 못했는지 평가를 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을 심사평이라고 해야 하나, 그저 앞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몇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극제 심사에는 기본 방침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연극은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종합예술은 여러가지 형태의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조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긴장과 이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되느냐 안되는냐가 연극의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노리는 것은 여러가지 다른 악기, 여러가지 다른 목소리가 모여서 하모니를 이뤄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전달하는 상황, 그 ' 앙상블 입니다. 좋은 연극은 하나의 앙상블이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두번째, 연극은 뭐니뭐니해도 마음의 소립니다.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서 한마디도 안했다고 칩시다. 연극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이른바 판토마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연극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고 말속에 담긴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무대 밖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외면 당하고 문화예술은 지방에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입니

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56년이지만 그 50년 동안 지방은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방에 있으면서 좋은 예술, 좋은 문화, 좋은 삶의 가치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우치면서 우리도 서울처럼, 우리도 선진국처럼 잘 살아보자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지역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의 행사가 서울의 기성예술의 기성연극을 본따는 풍조가 생겨난 겁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텔레비젼 문화', 그러니까 텔레비젼에서 비쳐지는 이른바 극이라든가 코미디라든가 쇼라든가. 이런 것을 닮은 것이 앞서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성의 것을 얼마만큼 모방하지 않았느냐 라는 점, 이것이 세번째로 눈여겨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말해 얼마만큼의 창의력을 갖느냐, 얼마나 새롭게 하려고 애썼느냐, 기성을 흉내내지 않았느냐, 흉내내지 않고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자했느냐 하는 창의력을 본 것입니다.

이번 몇가지 원칙을 두고 저희들의 원칙에 입각해서 비교적 그 원칙에 근접한 극단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극을 보고 아쉬움을 느낀 것은 연출이 매우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연출이란 것은 작품의 선택에서부터 연습기간, 거기에 포괄하는 배우를 자각하고 그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극은 그 연출이 가진 기능은 발휘하지 못한 채 이를테면 '교통정리', 우편에서 나와서 좌편으로 퇴장해라, 이부분에서 앉고, 거기서 울어라 흐느껴라, 소리쳐라, 이것만 했지 그 의미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런 연극에서 우리는 감동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극에서 얻는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이란 뭐냐, 연극은 다른 예술과는 달리 가장 근본적인 특색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그리는 예술입니다. 다른 문학이나 미술, 음악은 자연을 표현해도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연극은 철두철미하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그리는 예술입니다. 인간에 대한 공부, 인간에 대한 묘사, 인간에 대한 탐구 없이는 연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극의 생명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 한가지 예로 그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노래했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 연극 열다섯편 가운데, 두편을 빼고는 예외없이 스모그를 핍니다. 왜 스모크가 필요하냐, 그것은 그 작품의 장르에 따라 환상적인 것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상상을 주고 신비로운 감을 피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세편이 예외없이 스모그를 핍니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창의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면장면을 그저 볼거리만 만들어 사람들을 혹하게 할뿐이라는 겁니다. 무대 위의 음악이라는 것 또 음향이라는 것 역시 이것은 연극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연극의 중심에 접근하기 위해서 음악이 있고 음향이 있을 텐데 음악은 음악대로 따로 놓고 음향은 음향대로 따로 놓는, 겉도는 경우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출자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불러놓고 연습시키는 교통정리가 아니라는 것, 연출자는 우선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작품을 선택할 때 이 작품을 이 시기에 이 시대의 관객들에게 보여줘서 쓸만한 것인가 아닌가부터 검토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좋은 작품은 더러 있었지만 그 작품을 왜 했는가, 그 작품이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만든 연극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극하는 자기들끼리만 의사소통이 되지 관객들은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연극은 관객을 위해서 있는 예술입니다. 시인이 시를 쓰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 이상으로 연극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관객과 합류되어 교감을 하고 즐거움 뉘우침 긴장 분노 폭발을 함께 느끼는 것이 연극입니다. 그러나 관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일종의 자위행위 같은 연극, 혼자만 느끼고 혼자만 즐기고 자기만 아는 연극, 불필요한 장치를 하고 불필요한 의상을 입고 불필요한 스모그를 피워대는 연극, 이런 연극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연출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관객에게 이 작품이 가지는 메시지가 얼마만큼 절실한가 절실하지 않은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연기는, 서두에도 말했지만 인간을 그리는 것, 형식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성격입니다. 뭐하는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해야 옳을 것이냐, 그러나 그 역시 대사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객에게 자기를 어필시키기 위해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연극은 경우에 따라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소리를 질렀을 때 과연 그 소리가 관객에게 전달이 될까요. 연기는 말,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전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화술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연기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대 위에서 말을 하는 것은 배우와 배우가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관객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움직일 때는 무대의 공간을 얼만큼 골고루 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툰 배우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관객을 전혀 고려해 두지 않은 잘못된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배우가 육체적으로 성숙해서 잘 생기고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정확히 하면서 말속의 진리, 말속에서 깨달음을 주는 화술 연마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춤추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 기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대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음계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성악가를 무대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연극의 경우는 그런 기초 없이도 누구나 설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박혀있습니다.

또 종합적인 얘기지만 연극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관객에게 무언가 전하고 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 무의미 한 것은 ' 넌센스 '죠. 연출자는 연출자대로, 연기자는 연기자대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이 작품의 의미가 뭐냐, 이 장면의 의미가 뭐냐를 확인한 다음에 연극을 해줘야지, 그것없이 대사만 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연극 이전의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지금 말한 것들에 상당부분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상작이 결정되긴 했지만 그것이 그런대로 원칙에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은 결코 서울을 의식해서는 안됩니다. 기성예술을 의식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 우리 것 '을 찾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방문화의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사회 문화예술을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이전에 의식입니다. 더 크게 봅시다. 이제 남북이 합치자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애국자가 되자거나 국수주의자가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극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놀이적인 요소는 있다, 놀이적인 요소는 있지만 놀이는 아니다, 연극은 예술이다, 예술이란 뭐냐, 진실을 찾는거다, 진실이란 뭐냐, 우리의 삶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선 안된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보다 좋은 삶을 위해서 연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열연해 주신 열다섯 극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상을 못 탔으니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상을 탔으니까 우쭐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모자라다, 우리는 아직도 공부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아직도 내일이 있다, 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또 이 행사가 있기까지 행정당국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고마움, 또 바쁘신 중에도 늘 이 극장을 메워 연극인들에게 격려와 위안을 주신 이 지역 관객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평 아닌 충고를 마치겠습니다.